

석유 조기경보지수 경계단계 진입

산자부, 8월 3.48에서 9월 3.50 넘어서 ... 에너지 절약 강제시책 주목

최근의 고유가로 인해 석유시장 경보지수가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높아졌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9월15일 “석유경보지수가 9월 들어 3.5를 넘어 경계단계로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석유시장 위기상황을 사전에 경보하는 석유경보지수는 8월 3.48을 나타냈었다.

석유경보지수는 석유 위기, 선행성이 높은 두바이(Dubai)유 가격, 석유수출국기구(OPEC) 잉여 생산능력 등 18개 변수를 고려해 산출되며 2005년 1월 이후 <주의> 단계를 유지했다.

석유조기경보지수는 정상(1.5미만), 관심(1.5-2.5미만), 주의(2.5-3.5미만), 경계(3.5-4.5미만), 심각(4.5이상) 등 5단계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강제적 에너지 절약 시책이 시행될 것인지 주목된다.

정부는 최근 고유가로 인한 석유 수급차질 가능성을 우려해 강제적인 에너지 절약조치 시행을 검토해왔으나 국민불편, 경제영향, 절약효과 등을 고려해 시행을 미루고 있다.

<화학저널 2005/09/16>